

### 해킹피해 막으려면 비밀번호 바꾸세요

1천800만 명의 회원을 둔 국내 최대 인터넷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에 최근 해커가 침입해 다수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ID, 실명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다음을 중심으로 비밀번호(패스워드) 변경 캠페인에 나섰다.

KISA 측은 “가입자들은 하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밀번호 변경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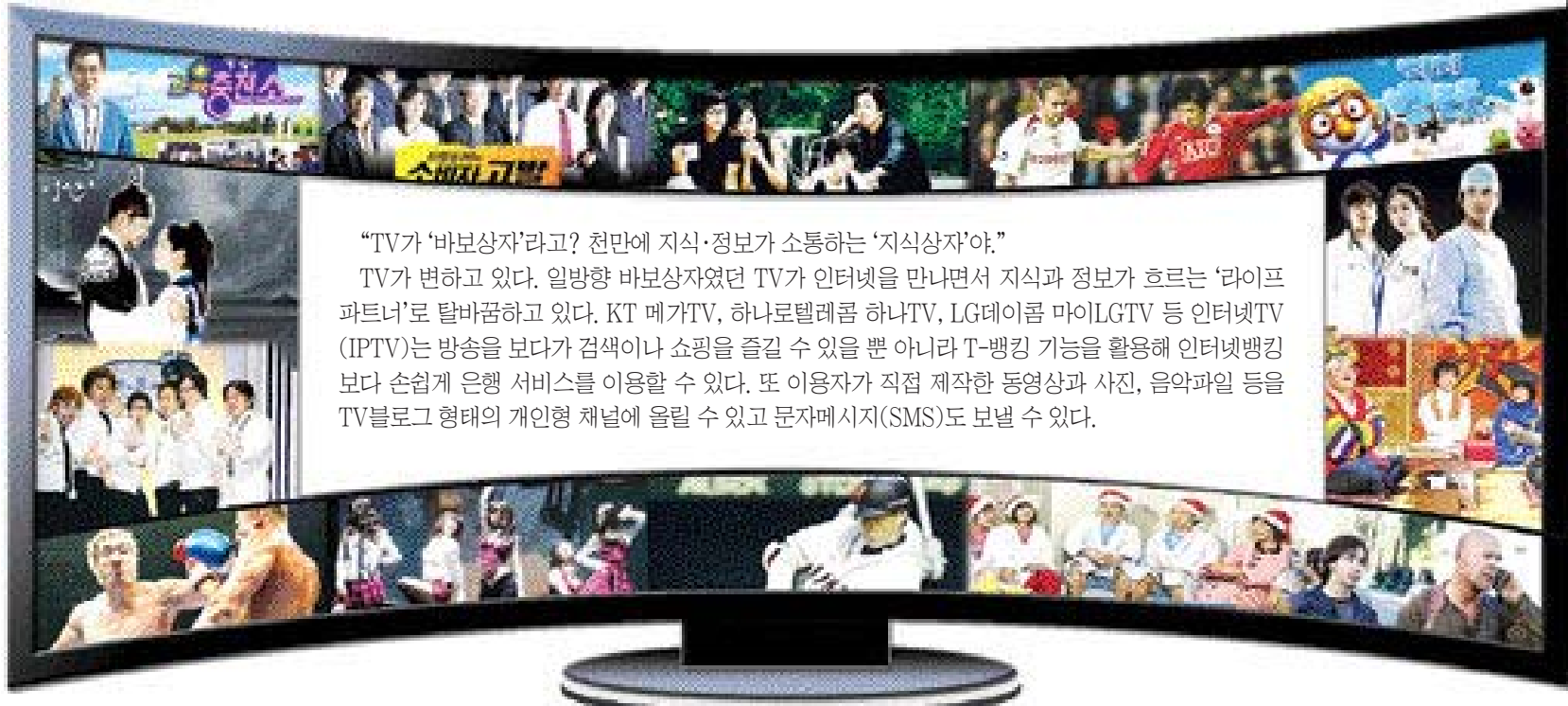
### CGI 전문 교육생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오는 13일까지 제4기 CGI(Computer Generated Image, 컴퓨터 가공형성 이미지) 전문인력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12주로 예정된 CGI 전문인력양성 3D 모델링·합성 과정은 3D 애니메이션의 모델링, 텍스처, 라이팅, 렌더링, 합성 등 현장 중심의 전문 실습교육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지역 애니메이션·디자인과 전공자나 CGI·애니메이션 등 관련업체 근무자 등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오는 22일까지 진흥원 홈페이지(www.gitc.or.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sinai@gitc.or.kr)로 접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TV ‘바보상자’라고? 이젠 ‘지식상자’ 됐어요

▲메가TV, 교육·맞춤형 콘텐츠로 승부=KT 메가TV는 교육과 맞춤형 콘텐츠인 CUG(Closed Users Group·폐쇄이용자그룹)를 무기로 삼고 있다.

어린이 전용채널인 ‘메가키즈’에서 전문적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키즈 북북’, ‘베이비 퍼스트 TV’와 같은 국내외 유명 유아교육 전문채널들과 제휴했다. 또 메가스터디의 중등교육과정인 ‘에베스트’의 교과서 속 수화원리 이해, 사설 읽기 등 강의를 독점 제공하고 종료하면 ‘이클래스’의 모든 수능·통합논술 강화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했다.

특정 이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CUG는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 서비스다. CUG는 ‘인터넷카페’처럼 기업이나 종교단체 등 특정그룹이 IPTV의 채널을 이용해 사내방송, 예배, 교육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TV 속의 카페’다. 기독교인 전용 CUG인 ‘갯피어’를 상용화한 데 이어 유아교육 전용 CUG, 공연·문화 유통기업인 ‘밀레21’이 제공하는 공연 전문 CUG가 최근 문을 열었다.

특히 KT는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제휴,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로 시청중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됐다.

▲하나TV, 영화·애니메이션에 주력=하나TV는 영화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강세다. 하나로텔레콤은 세계적인 미디어그룹인 월트디즈니를 비롯해 워너브라더스,

### 인터넷과 만나 양방향 서비스 방송 보면서 검색·쇼핑 즐겨 지식·정보·교육·맞춤형 인기

소니픽처스, 내셔널지오그래픽, CJ엔터테인먼트 등 국내외 270여개 콘텐츠 회사와 계약을 체결, 7만여편의 콘텐츠를 확보했다. 특히 최신영화를 홈비디오 출시와 동시에 하나TV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해 지루함을 덜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 확보는 공동제작 방식으로 우선권을 확보하고 있다. ‘뽀롱뽀롱 뽀로로’에 이어 최근에는 아이코닉스 등과 손잡고 3D애니메이션 ‘치료와 친구들’을 공동제작 했다.

▲마이LGTV, 고선명 콘텐츠로 차별화=IPTV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들던 LG데이콤은 마이LGTV의 차별화를 위해 HD급 고품질 콘텐츠 제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콘텐츠를 전송하며 볼 수 있는 ‘다운앤드플레이(D&P)’ 방식을 적용,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각종 동영상들

HD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료건강 포털사이트 헬스조선과 양방향 콘텐츠 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당뇨병, 심장병, 녹내장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치료방법들을 영상으로 제공한다.

▲TV밖이 더 재밌다=지난해 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특별법)’이 산고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빠르면 오는 7월 지상파방송의 실시간 전송을 포함한 진정한 IPTV 서비스가 상용화 된다. 이에 따라 IPTV시장 선점경쟁을 벌였던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통신업체들은 하반기 분선 경쟁에 돌입, 치열한 마케팅 전쟁을 펼칠 전망이다.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는 IPTV를 새로운 성장 동력사업으로 적극 추진, 올 연말까지 150만명의 메가TV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전망이다. 80만명의 하나TV 가입자를 확보한 하나로텔레콤은 새로운 대주주인 SK텔레콤의 지원을 바탕으로 IPTV시장 주도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이고, LG데이콤도 마이LGTV를 앞세워 올해 20만 가입자를 확보해 IPTV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인터넷포털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셀러나 손잡고 IPTV시장에 출사표를 던져 하반기 분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억 재구성 과정 ‘뇌의 신비’ 밝혔다

기억이 재구성되는 메커니즘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기억재구성연구단의 강봉균(사진)교수 연구팀은 한번 저장된 기억이 다시 인출될 때 기억을 저장하는 시냅스가 허물어지는 메커니즘이 있으며, 이 과정이 기억 재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시냅스들이 단단하게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으며, 시냅스 강화과정에서 단백질의 합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여러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기억을 떠올릴 때 뇌에서 기억을 부호화하는 시냅스가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단단했던 시냅스가 불안정해져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 서울대 강봉균 교수 연구팀 저장부위 메커니즘 첫 규명

는 거의 알려지지 바 없었다.

강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억을 떠올릴 때 기억을 부호화하며 강화했던 시냅스가 특수단백질분해과정(ubiquitin-proteasome system)을 통해 허물어지고 결국 기억을 재구성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기억을 떠올릴 때 시냅스를 구성하는 신경 세포들은 특수단백질분해과정을 사용해 시냅스의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가 결국 기억을 부호화하는 시냅스를 허물어뜨려 기억 재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또 특수단백질분해과정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면 기억이 재구성될 수 있는 상태로 가지 못해 기억의 변형, 극단적으로는 기억의 소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기억을 유지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응용돼 의학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원위지인 ‘사이언스(Science)’의 8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합뉴스

#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주거

봄맞이  
본사지원

**Big Sale**

침실

주방

가전

식당

주거

가전

침실

주거

가전

침실